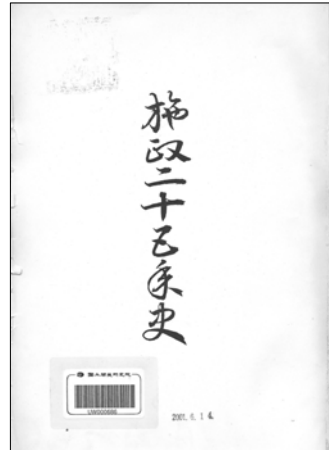


55 施政二十五年史 시정 25년사

1934년 / 조선총독부 / 986면 / 14.10-09 조53시 1935

施政三十年史 시정 30년사

1960년 / 조선총독부 / 1,097면 / 14.10-09 조53시 1960



조 선총독부에서 1934년에 출간한 책이다. 1910년~1934년까지 25년 간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다. 본문이 986면인데 여기에 1904년~1934년까지의 시정일지(施政日誌), 127면의 도표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것을 모두 합하면 1,168면의 방대한 책자다. 도표는 분야별 통계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고, 사진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민속 관련 사진이 많다.

이밖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일지가 55면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. 그것도 합병 이전인 1904년~1934년까지 30년 간의 일지가 수록되어 있다.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.

- 1904년 10월 17일 - 육군대장 長谷川好道(하세가와 요시미치)가 조선군 사령관으로 경성에 도착하여 대관정(大觀亭)을 관사로 사용했다.
- 1905년 5월 28일 - 1905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경부선 철도 준공식은 경성에서 거행.
- 1907년 8월 1일 - 7월 31일 한국 황제폐하는 군대 해산의 명령을 발하고 8월 1일

훈련원에서 해산식을 거행하였다. 이날 군인 중 폭동을 일으킨 자가 있었다. 폭도들은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그후 지방 각지에서 해산병 중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끊이질 않았다.

- 1907년 8월 16일 - 일본 황태자(후의 大正천황)가 천황의 명에 따라 한국 견학을 위해 육군대장 桂太郎(가쓰라 타로), 해군대장 東郷平八郎(도고 헤이하치로) 및 岩倉具視(이와쿠라 토모미) 공작, 花房(하나부사) 남작을 동반하고 8월 10일 동경을 출발, 13일 吳軍港(구래군항)에서 4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인천항에 도착, 영접 나온 伊藤博文(이토 히로부미) 통감과 황태자 이은(李垠) 전하의 영접을 받고 악수를 교환했다.
- 1908년 8월 26일 - 한일양국은 법률로서 ‘동양척식주식회사법(東洋拓植株式會社法)’을 공포하고 자본금 1천만 엔으로 같은 해 12월 28일에 회사를 설립하였다(이 회사는 명동에 있던 구 내무부 청사가 본사이며 일제하 우리나라 착취의大本산이었다).
- 1909년 9월 4일 - 간도에 관한 청·일간의 조인으로 도문강이 청나라와 한국의 국경임을 확인하였다.

『施政三十年史(시정 30년사)』는 1935년~1939년까지의 기록인데 전편 404면은 『施政二十五年史(시정 25년사)』의 요약이고, 후편 527면이 5년 간의 기록이다. 여기도 66면의 연표(年表)와 100여 장의 사진이 이채롭다.